

너를 사랑

MARSA KOREA
MAGAZINE

2018 09
제9호

한국해양구조협회는
늘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지켜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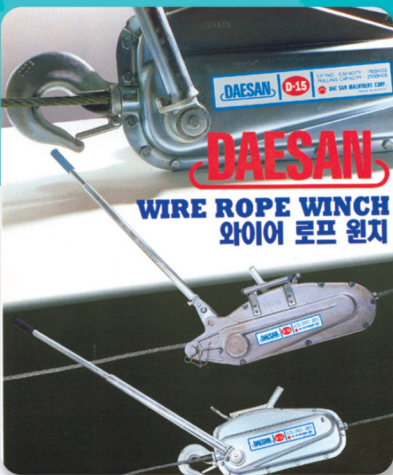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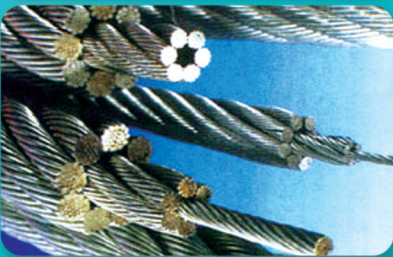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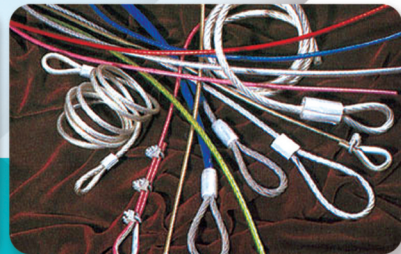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산업환경 W플랜이 있습니다.

W플랜은 와이어 로프, 체인, 샤클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로 고객우선주의의 마음가짐을 지켜갑니다. 질 좋은 제품 공급, 사후 철저한 A/S로 W플랜의 신뢰를 더욱 깊이 쌓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 든든한 내실을 다진 믿음을 줄 수 있는 회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취급품목 - 로프류, 부속류, 체인 및 운반하역기기류



(주)더블유 플랜 | 대표 : 전현진

Tel. 02-895-4770 / 031-492-7311 Fax. 031-492-7312

www.wire-rope.co.kr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

MARSА KOREA MAGAZINE

2018 09
제9호



발행처 한국해양구조협회
발행인 신정택
발행일 2018년 09월 26일
주소 48562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356번길 93 (용당동)
TEL. 051) 714-3695
FAX. 051) 714-3095
기획·편집 김다현
디자인·인쇄 세종출판사
TEL. 051) 463-5898

너를 사랑

표지 제자 「너를 사랑」

바람에 일어나는 물결을 의미하는 '너울'과 봉사정신의 밑바탕인 '사랑'의 합성어로 해양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숭고한 봉사정신이 담겨져 있다.

CONTENTS

Special Theme

- 04 제언 해양구조협회의 역할과 발전방안
_중앙해양경찰특수구조단 박종철 단장
- 06 총재동정 신정택 총재, 중북 맞아 삼계탕 후원

MARSА News

- 07 본부 뉴스 1) 협회-해경청 지휘부간담회
- 08 2) 제65주년 해양경찰의 날
- 09 3) 제4회 대한민국 해양안전엑스포 참가
- 10 4)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해양구조대 처우 개선 시급

지부 · 지역대 뉴스

- 11 1) 영덕구조대 발대식
- 12 2) 장흥구조대장 취임식
- 13 3) 경남서부지부, 통영시 장애인복지관과 행복위터파크 진행
- 14 4) 경북지부 울진구조대, 2018 여름바다 체험행사
- 15 5) 전국구조대 구조 및 구난 활동

MARSА Story

- 17 1) 장흥의 해양지킴이, 장흥구조대의 봉사 이야기
- 20 2) 아무도 가지 않은 길
_부산광역시장애인청년연합회, 재난안전지도사 1급 과정
- 22 3) 환경을 부탁해 해양오염의 주범, 플라스틱과의 전쟁

MARSА Info

- 25 1)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 26 2) 생존의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가시해마'를 지켜주세요
- 27 3)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 자원 남획의 주범 잡는다
- 28 4) 서아프리카 해적 위험 높아져... 해적 경계강화 당부

MARSА Notice

- 29 1) 2018년 국가자격『수상구조사』교육
- 32 2) 2018년 『인명구조요원』교육
- 33 3) 2018년 『재난안전지도사』, 『해양안전지도사』교육
- 34 협회후원안내

● 제 언

해양구조협회의 역할과 발전방안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단장 박종철

존경하는 한국해양구조협회 가족 여러분!

먼저 해양사고 현장에서 누구보다 먼저 도착하여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시는 해양구조협회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3년간 우리바다는 연평균 2,900여척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 52시간 근무제, ‘워라밸’ 문화 확산 등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바다 낚시객 등 수상레저활동 인구의 증가로 해양사고의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국토 면적의 약 4.5배에 달하는 우리바다를 하루 70여척 출동하고 있는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1척당 서울시 면적의 약 10배를 담당하고 있어 바다안전을 완벽하게 책임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바다에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경의 든든한 동반자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중앙해양특수구조단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양구조협회와 수중수색구조 협력 약정을 체결(‘15)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2회 이상 합동훈련과 정례회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지난 5월과 6월 진해와 포항에서 실제상황을 가정한 기동훈련을 통해 수중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조하기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처한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19개 지부에 1만 5,0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무하여 협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육상의 의용소방대는 지자체에서 소집수당, 운영비, 장학금 등 매년 600억 원(‘15년 기준)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받고 있어 한층 더 안정적으로 조직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해양구조협회 회원들이 조금 더 마음 놓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할 때입니다. 「수상구조법」개정을 통한 재정 지원과 함께 국민 누구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혜택 확대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해양구조협회가 뛰어난 구조 역량을 바탕으로 해양사고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국의 왕립구명정협회(RNLI)의 경우 회원이 되면 정해진 수습과정 이외에도 6개월간 보트조종법, 수색구조 레이다 항해훈련 등을 매주 받게 되어 있어 연간 8,000회 가량 출동하여 300여명 이상의 인명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영국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고 있어 정부의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는 독립된 자원봉사단체지만 3,000억 원 이상의 기부금으로 300여척의 구조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대원들의 교육·훈련을 통해 한국해양구조협회 구조대원들의 수색구조 역량을 검증하고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국민의 성원을 받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구조대원들의 구조역량, 장비운영능력과 교육·훈련시간 등에 따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 보증하는 자격인증제도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해양구조협회의 구조 전문성은 향상되어 국민의 신뢰를 얻는 한편, 중앙해양특수구조단도 민간잠수사, 구조업체 등 다양한 회원들로부터 최신 구조기술을 배우고, 뛰어난 민간 구조인력과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항상 '준비하고 구조하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해양구조협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이러한 시스템이 조기에 정립되어 지금보다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한국해양구조협회 회원 여러분도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생업을 마다하고 지금도 사고현장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한국해양구조협회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가 해양경찰과 함께 바다안전의 한 축으로서 영국왕립구명정협회(RNLI)에 버금가는 명실7상부한 '민간해양 구조전문기관'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총재등정

신정택 총재, 중복 맞아 삼계탕 후원



◀ 2018년 사랑의 삼계탕 나눔 DAY 행사 현장

지난 2015년부터 후원, 올해로 4회째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2018년 사랑의 삼계탕 나눔DAY 행사’가 지난 7월 27일 부산 영도 목장원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2015년부터 신정택 총재가 매년 후원하고 있는 이번 행사는 부산 영도구내 복지관 8곳에서 지역 어르신 및 소외계층 3,00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신재우 세운철강 사장도 직접 참여하여 참석자들에게 삼계탕을 전달하였으며, 김철훈 영도구청장, 구의원 등도 참여하였다. 아울러 복지관을 방문하기 힘든 어르신들과 소외계층 가정에는 직접 찾아가서 삼계탕을 전달하였다.

또 이전과 마찬가지로 삼계탕과 음식 재료 모두 지역 재래시장에서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신정택 총재는 평소 어려운 이웃돕기를 적극 실천하고 있으며 2016년 1억원을 기부하며 부산 아너소사이어트 100호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다.





「한국해양구조협회-해양경찰청 지휘부 간담회」 개최

지난 8월 28일, 우리협회는 해양경찰청 8층 대회의실에서 「한국해양구조협회-해양경찰청 지휘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한국해양구조협회-해양경찰청 간담회 모습

우리협회에서는 신정택 총재를 비롯한 민홍기 이사장, 김성태 부총재, 경북지부 김태곤 협회장, 경남동부지부 김성중 협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해경에서는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류춘열 차장, 국장단, 구조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선에서 구조·구난활동을 하는 민간구조대의 열악한 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지원 등 다각적 지원방안 대책과 구조협회-민간해양구조대 조직일원화,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았으며 양 기관은 각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광활한 바다에서 해경만으로 모든 사고대응은 불가능하여 민간구조 활성화는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당면과제이다.”며 “구조협회가 창립 이래 정부의 재정지원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바다안전에 공헌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예산 지원을 위한 법률개정, 수익창출방안, 조직일원화, 합동훈련 등을 통해 구조협회가 신명나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 각오를 다지는 양 기관



▲ 인사를 나누고 있는 신정택 총재

제65주년 해양경찰의 날

지난 8월 7일, 인천 연안부두 해양광장에서는 ‘소통과 공감으로 바다를 안전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제65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 민홍기 이사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이 ‘해양경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조현배 해경청장 등 관련 기관단체 1,000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 협회에서는 민홍기 이사장을 비롯하여 부총재, 이사, 협회장 등 다수가 참석하여 ‘해양경찰의 날’을 축하하였다.

‘해양경찰의 날’은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로, 배타적 경제수역 발효일인 9월 10일을 기념일로 정해 매년 행사를 개최해 왔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유공자 포상 축사, 기념공연, 해양안전다짐, 해양경찰가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해양경찰의 날 정부포상 전수 6명 및 해양경찰 홍보대사인 방송인 이덕화, 이익선, 이국종 교수 등이 동반 입장하였으며, 통영해양경찰서 신동삼 서장(現, 남해지방청 기획운영과장, 총경)이 녹조근정훈장을, 울진해양경찰서 김상대 507함장이 근정포장을 수훈하였다.

조현배 해경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해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이 이용하는 바다를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라며 “국민과 소통해 각종 해양사고 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실제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구조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제4회 대한민국 해양안전엑스포 참가



◀ 구명보트 탑승체험을 하고 있는 아이들

지난 7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관에서 제4회 대한민국 해양안전엑스포가 개최되었다.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전람, DREAM KOREA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대한민국 해군,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30개의 해양안전 관련 기관 단체 133개사 459부스가 참여하였으며 총 15,022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주요 행사로 △해양안전 사고예방 홍보전 △해양(조선)안전 기술 및 기자재 산업전 △국제해양안전 컨퍼런스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우리협회는 행사기간 중 해양안전 체험 특별관을 운영하면서 입수체험 등을 진행하였다. 실내에 폴장

(30mx25m)을 설치하여 익수자 구조 및 생존 수영 실습, 구명보트(IBS) 및 구명뗏목 탑승체험을 진행하였으며 본회 및 부산지부의 전문강사진들이 투입되어 1,000여명의 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체험을 진행하였다.

이날 실습체험을 담당했던 김운섭 교육연구본부장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해양안전 실습체험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어 매우 뜻 깊었다.”며 “협회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대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구명뗏목에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진한근 부산지부 전의경 봉사대장



▲ 생존수영을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해양구조대 처우 개선 시급 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속히 마련할 것



▲ 황주홍 의원

◀ 황주홍 의원과 김성필 장흥구조대장 및 대원들이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8월 25일 장흥 해양구조대와의 간담회를 갖고 해양구조대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흥 해양구조대는 구조대에 구조선이 없어 개인 소유 어선으로 구조 활동을 해야하므로 불편과 제약이 따르고, 구조대원의 교육훈련 과정에서 별도의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열악한 처우 문제를 호소했다.

또한 장흥구조대는 현재 해양구조협회를 통해 지원되는 구조활동비 역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난해까지 1인당 5만 6천원 지원되던 구조활동비가 올해 2만 8천원으로 줄어들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장흥구조대원들과의 간담회 직후, 조현배 해양경찰청장과 통화하고 해양구조협회와 해양구조대원들의 처우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민간해양구조대와 유사한 형태인 의용소방대는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동원수당, 장학금, 피복, 재해보상, 행사지원, 구조장비 지원 등 1인당 평균 62만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지만, 해양구조대는 동원수당만 지원받고 있고, 1인당 평균 지원금은 8만 5천원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위원장은 “연근해 해양사고 시 민간해양구조대의 조력 없이 공권력만으로는 사실상 구조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한국해양구조협회와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영덕구조대 발대식

지난 7월 18일, 오전 11시경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협회 경북지부
영덕구조대 발대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민홍기 이사장을 비롯하여 경북지부 김태곤 협회장, 서영교 울진해양경찰서장, 윤석홍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이희진 영덕군수, 이원열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영덕구조대의 초대대장으로 임명된 전대헌 대장은 현재 축산항푸른바다리조트영어조합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영덕구조대가 민간구조대로 활동했을 1998년부터 영덕군 일대 해난구조, 수중정화활동 등 해양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서영교 울진해경서장은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앞으로 영덕구조대가 경북북부지역의 바다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로 발전할 것”이라며 “영덕구조대의 발대로 울진해경은 해양사고에 더욱 신속한 민·관 협력체제가 구축되었고 앞으로 구조협회 역량이 더욱 강화 될 수 있도록 합동훈련 등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전대헌 영덕구조대장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구조단체의 리더로서 해양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경북지부는 작년 7월 울진구조대 발대식에 이어 올해 영덕구조대를 조직·발대 하였으며 더불어 경주구조대, 포항구조대, 경북특수구조대 등과 함께 경북지역의 구조·구난 활동뿐만 아니라 사고예방, 안전교육, 안전캠페인, 수중정화활동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경북지역의 해양안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 기념촬영



▲ 경북지부 김태곤 협회장으로부터 구조대 기를 전달 받는 전대헌 대장



▲ 영덕구조대 사무실에서 현판식

장흥구조대장 취임식

지난 7월 12일, 장흥군민회관에서 장흥구조대장 취임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민홍기 이사장을 비롯하여 위삼섭 부군수, 곽태수 도의원, 박상래 강진소방서장 등 각 기관단체장들과 장흥구조대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김성필 대장과 장흥구조대원들

이날 행사에서는 총재 및 장흥군수 표창장, 완도 해경서장 감사장 등 해양안전을 위해 봉사해온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상하는 자리도 마련되었으며 총재표창에 3명(김기웅 수석부대장, 임남진 사무국장, 김경배 교육팀장), 완도해경서장 감사장에 2명(김장일 대원, 김영운 장비팀장), 장흥군수 표창장에 2명(김우진, 김성현 대원) 장흥구조대장 감사패에 4명(박종문 고문과 황인수, 박춘열 이사, 김지수 대원) 등 장흥구조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온 임원 및 대원들이 수상하였다.

신임 김성필 구조대장은 5년간 장흥구조대의 일원으로 장흥 일대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구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해양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에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민홍기 이사장으로부터 견장을 수여 받은 김성필 대장은 “지자체, 해양경찰서와 단단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오고 있는 장흥구조대는 바다와 어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단체”라며 “봉사를 하며 힘들 때 나의 몸이 장흥군민의 몸이라는 격려에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 대원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지향 하겠으며 구조인력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고 각오를 다졌다.



▲ 감사패를 받은 후 기념촬영



▲ 민홍기 이사장으로부터 견장을 전달 받는 김성필 대장



경남서부지부, 통영시 장애인복지관과 행복워터파크 진행

지난 7월 21일, 우리협회 경남서부지부는 통영시 장애인복지관에서 행복워터파크를 개장하였다.

통영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경남서부지부는 장애아동의 경우 물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및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다는 사실에 이번 행사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는 50여명의 장애아동들이 참여하여 각종 물놀이를 즐겼으며, 전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보유한 20명의 대원들과 장애인복지관 인솔교사 15명 등이 투입되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남서부지부는 팝콘, 솜사탕, 커피 등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물놀이를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간식코너도 따로 마련하였으며, 이날 모든 워터파크 이용권과 간식은 무료로 제공되었다.

경남서부지부 장종철 협회장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물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니 큰 보람을 느꼈다.”며 “우리 지부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통영시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매년 장애아동들을 위한 워터파크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서부지부는 해양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복지관 물품지원, 김장봉사, 수해복구지역 후원금, 노인복지 관련 후원금 등 지역사회를 위해 모범적인 봉사단체의 면모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안전요원들의 인솔 아래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아이들



▲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는 경남서부지부 장종철 협회장



▲ 워터파크 내 놀이시설을 즐기고 있는 아이들

울진구조대, 「2018 여름바다체험 행사」 개최

지난 8월 15일, 우리협회 울진구조대는 울진군 후포해수욕장에서 「2018 여름바다체험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울진군 내 거주하는 250명의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해양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초기대응 능력 향상에 목적이 있다.

행사에는 우리협회 경북지부 김태곤 협회장을 비롯하여 서영교 울진해양경찰서장, 한명효 울진구조대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울진구조대원 30명, 해양경찰 5명, 소방 5명, 자원봉사 10명 등이 행사 안전지원에 나섰다.

안전교육은 수상안전 및 CPR 체험교육, 물놀이 안전교육 등을 진행하였으며, 스킨스쿠버, 패들보드, 레프팅, 바나나보트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함께 마련되었다.

한명효 울진구조대장은 “앞으로도 쉽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울진군민에게 안전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실습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하였다.

한편, 울진구조대는 이날 행사 후, 후포해수욕장에서 30명의 대원들이 함께 해양정화활동을 진행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하였다.



▲ 해양체험활동을 위해 울진구조대원들과 준비운동을 하는 아이들



▲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을 교육하는 해양경찰



▲ 울진구조대와 함께 레프팅 체험 중인 아이들



전국 구조대 구조 · 구난 소식

| 경주구조대, 경주 나정항 선박침몰 실종자 수색작업

지난 8월 20일, 경주 감포에서 조업을 하러 나간 선장 김모(67)씨가 실종된 사고가 발생하였다.

포항해경은 경비정 7척, 민간어선 15척, 항공기 1대를 투입하여 집중수색하였고, 우리협회 경주구조대에서도 구조대원 4명과 구조선 1척이 투입되어 수중 및 해상 수색을 벌였으며, 경북지부 김태곤 협회장도 현장을 방문하였다.



▲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는 경주구조대

김씨는 20일 오전 4시경 감포읍 나정항에서 1.22t급 통발어선을 타고 혼자 바다에 나갔다가 연락이 끊겨 어촌계장이 당일 경찰에 신고하였다.

특히 실종 후, 김모씨의 어선에서 자동위치발신장치(V-PASS)가 작동되지 않았고, 수색 당시 수심이 깊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수색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된 김모씨는 22일 오전 9시경 24km 떨어진 포항 구룡포 북방파제 앞바다에서 조업 중인 어선 선장에 의해 사체로 발견되었다.

| 장흥구조대, 물놀이 중 익수한 실종자 수색작업

지난 8월 1일 오후 3시경 일정한 해상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은 장흥구조대가 출동하였다.

이 사고로 해양경찰 경비함정 3척과 민간구조선 5척이 투입되었으며, 장흥구조대는 김성필 대장을 비롯한 9명의 구조대원들이 투입되어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섰다.

MARSA NEWS | 지부/지역대 뉴스 |

익수자는 근처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조모군(남,19세)으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 실종되었으며 인근 마을주민이 완도해경서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실종자 조모군은 8월 2일, 오전 10시 40분경 근처 해상에서 사체로 발견되어 해경과 장흥구조대는 이를 만에 수색작업을 종료하였다.



▲ 실종자 수색에 나서기 위해 민간어선에 올라타는 장흥구조대원

| 부산지부, 이기대 해상 좌초 선박 구난 작업

지난 7월 31일, 부산 용호동 이기대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통발어선(2t)이 스크류에 통발이 감겨 해안가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선박 인양을 위해 크레인 줄을 선박에 고정하고 있는 부산지부 수중봉사대 조유신 국장

신고를 접수한 우리협회 부산지부 수중구조봉사대는 조유신 국장, 김종규 구조팀장, 차영구 구조대원이 현장에 투입되어 낮 12시경 육상으로 선박을 안전하게 인양하였다. 사고현장에는 민간어선 1척, 잠수장비 그리고 크레인이 동원되었다.

현장은 부산지부 소속 대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해준 덕분에 선박의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기름유출도 막을 수 있었다. 사고 발생 직후 선장은 선박에서 바로 탈출하였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안전을 부탁 海

첫 번째

“우리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장흥의 해양지킴이, 장흥구조대의 봉사 이야기

지난 8월 23일, 전 국민의 휴대전화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태풍 ‘솔릭’에 대한 경보가 울렸다. “외출자제와 안전에 대해 각별하게 신경 쓸 것”을 당부하는 뉴스도 연일 보도되었지만 편하게 앉아 뉴스를 시청할 수만은 없는 사람들이 있다. 재난경보가 울리면 더욱 바빠지면서 많은 곳을 둘러보아야 하는 장흥구조대는 단 한 명의 인명 피해자가 없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해안가 곳곳을 돌며 지역주민을 보살핀다. 장흥의 안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근무를 자처하는 대원들을 보며 장흥군민은 박수를, 가족들은 서운함을 토로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된다.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지,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장흥 회진면에 위치한 장흥구조대 사무실에서 김성필 대장을 만나 보았다.



| 인터뷰_김성필 장흥구조대장

365일, 야간순찰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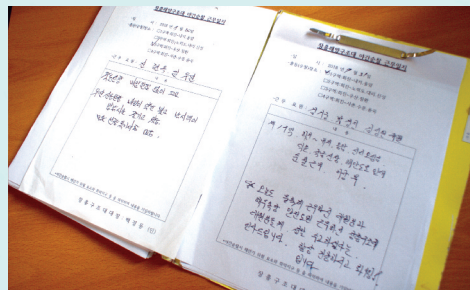
장흥구조대는 365일, 매일 저녁 야간순찰 근무를 한다. 회진, 내저, 웅암, 노력도, 대리, 신상, 우산, 장환, 사촌, 수문, 용곡 등 지역을 분담하여 2~3명이 한 조로 움직인다. 현장에 있는 낚시객,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침 등을 알려드리며 현장사고에 대비하여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기동력도 함께 발휘한다.

“지역에 방범대가 있지만 주로 시내나 도로 쪽으로 순찰을 돌고 있다. 어두운 해안가나 항구 쪽은 아무도 순찰을 하지 않는다. 지난해 늦은 밤, 가족들과 함께 휴양을 온 아이가 텐트에서 잠을 자던 도중 해안가에서 바다로 구르는 사고가 있었다. 아이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후 야간순찰 근무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장흥구조대는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야간순찰 근무를 시작하였다. 대원들은 매일 본업이 끝난 후, 그 날 정해진 근무표에 따라 순찰 근무에 나선다. 순찰 근무는 실시간으로 SNS(밴드)를 통해 사진과 내용 등을 대원들과 공유하고 근무가 끝난 후엔 일지에 기록을 남긴다. 이들의 활동은 정부의 안전 관련 지원사업도 아니며, 본업도 아니다.

“지원금이 나오는 것도,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저 좋아서 하는 일이다.”

김성필 대장의 이유는 매우 단순했다.



좌) 장흥구조대의 야간순찰 근무일지
우) 야간순찰 근무 중인 대원



▶ 축제 기간 안전근무 중인 장흥구조대원들



◀ 익수자구조에 투입된 장흥구조대원들

가족과 함께하는 봉사를 위해

장흥구조대는 현재 정남진장흥물축제, 장흥개매기축제, 회령성축제, 수문해수욕장안전관리 등 여름이 되면 장흥군 내 축제마다 안전요원으로 투입된다. 몇 년 전만 해도 장흥구조대는 직접 군청에 연락하여 자발적으로 안전근무에 나서겠다고 했으나, 이제는 거꾸로 군청에서 매년 지원요청이 들어온다.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 시간에도 전화벨은 쉼 없이 울린다. 이 시간에 울리는 전화의 대부분은 해양사고 구조요청이다. 특히나 7~8월에는 피서, 해양레저 활동이, 9~10월은 어업인들에게 성수기에 해당되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장흥구조대원에게는 계절과 시간을 아랑곳하지 않는 열정이 주요한 덕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허구한 날 구조대 타령이다.”

장흥구조대원 가족들의 짧은 탄식은 일상이 된 지 오래.

가족들은 매일 퇴근 후 봉사활동을 하러 간다며 야간 순찰을 나가는 아빠 혹은 남편이 야속하게 느껴진다. 그러다 동네 입소문이나 언론을 통해 장흥구조대원들의 구조 활동 이야기를 듣게 되면 가족들은 비난 대신 응원과 지지를 보내며 동참하기도 한다.

5년간 헌신적으로 구조대 활동을 펼쳐온 김성필 대장에게 가장 보람 된 순간은 그 누구보다도 아들이 아버지의 봉사활동을 인정해 주었을 때, 봉사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 번 크게 느꼈다고 한다.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 한마디가 힘들 때 김성필 대장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한편 장흥구조대는 지난 8월 17일,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들로부터 호응을 얻기 위해 창립 이래 처음으로 가족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많은 이야기가 오갔던 단합대회에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구조대 활동을 지지해준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김성필 대장은 향후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기획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뒤에서 든든하게 응원해주는 가족이 없다면 내가 이 활동을 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인터뷰_김성필 장흥구조대장 | 안전을 부탁 海

안전은 '교육'으로부터

장흥구조대는 매년 장흥군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교육을 진행한다. 어린이집부터 단계별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장흥군 내 아이들은 이미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에 대해 숙련되어 있다. 하지만 장흥구조대원들은 아이들 보다 오히려 성인들의 안전인식이 매우 낮은 것을 여름 물놀이 축제나 행사 기간 중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장흥구조대는 성인 대상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후 SNS 및 광고 현수막을 이용하여 장흥군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지도사 2급 과정을 기획하고 홍보하였다. 그 결과 30명의 장흥군민들이 재난안전지도사 2급 과정에 참여하였고, 수강생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는 기대 이상이었다.

장흥구조대는 대원들의 안전교육 및 훈련에도 소홀함이 없다. 대원 자격요건 중 다이빙과 재난안전, 인명구조에 대한 교육수료는 필수이다.

교육의 일환으로 매년 잠수대원들을 소집하여 필리핀이나 베트남 현지에서 다이빙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바다는 잠수 시야 확보가 1미터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익수자를 구조할 때면 손으로 더듬어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의 경우 수심 40미터 까지는 모든 시야가 확보되어 심해를 경험 할 수 있어 대원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교육 장소로 활용된다.

“대원들에게 안전교육 및 훈련은 당연한 의무이다. 마음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해양봉사활동이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단련하고 구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도 사람들의 안전인식이 낮으면 결국 안전한 장흥을 만들 수 없다. '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안전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장흥구조대는 올 하반기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재난안전교육을 준비중이며, 군민들에게 자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 재난안전지도사 2급 교육을 받고 있는 장흥군민들



두번째 안전을 부탁해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부산광역시장애인청년연합회, 재난안전지도사 1급 과정



지난 8월 26일, 부산동구에 위치한 부산광역시장애인청년연합회 2층 강의실에서는 재난안전지도사 1급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최종 평가 날이기도 했던 이날의 대기실 풍경은 시험을 기다리는 교육생들의 긴장감과 막 평가를 마치고 돌아온 교육생들의 안도감이 한데 섞여 재미있는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국내 최초’ 장애인 재난안전지도사 1급 강사

재난안전지도사는 재난 상황에서 최상급의 숙련기능을 토대로 생명유지 및 의료기관으로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이며, 타인에게도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는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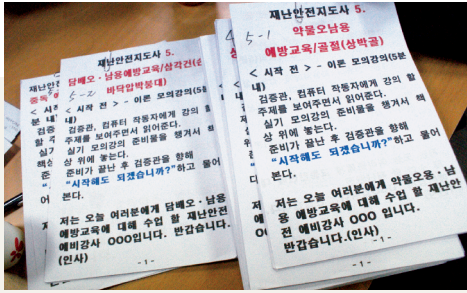
2015년 6월, 부산광역시장애인청년연합회와 한국해양구조협회는 MOU 체결을 시작으로 재난안전지도사 2급 과정을 통해 총 120명의 인재들을 양성하였다. 하지만 2급 교육과는 달리 1급은 교육 지도자를 양성해야 하는 전문강사 과정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는 전국에서 최초이다.

국내 최초로 장애인들이 도전하는 이번 과정은 타지역의 장애인 기관에서도 참관할 만큼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특히 재난안전지도사 1급은 △재난안전의 의미 △위급 시 행동요령 및 구조구급 △교수법(이론, 실기 교수법)등 이론과 실습교육이 함께 병행되며, 최종 평가 시에는 이론평가뿐만 아니라 응급처치에 대한 실기시험과 숙지한 내용을 토대로 직접 발표자료를 제작하여 평가관들 앞에서 모의 강의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비장애인 수강생 중에도 중도포기자들이 속출할 만큼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 하지만 교육현장을 방문한다면 걱정과 우려는 기우라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된다. 단 한 명의 중도포기자 없이 끝까지 달려온 그들을 보며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강사의 자질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



실습을 진행 중인 교육생들





◀ 좌) 글자크기 40폰트로 제작한 시각장애인 김성미씨의 발표대본
우) 모의강의 중인 김성미씨

晝耕夜讀(주경야독), 밤낮없는 강행군

8월 4일부터 시작된 교육은 매주 토, 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씩 한 달간(84시간) 진행된다. 이론과 실습의 수 없는 반복을 통해서 서툴고 어려운 과목들을 하나씩 숙달해 간다. 하지만 단순히 수업으로 끝나지 않는다. 매주 그들에게 부여되는 과제 때문에 쉴 틈 없이 복습과 과제에 매진해야한다. 또한, 마지막 평가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교안을 작성하고 발표까지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강행군이다.

시각장애인 김성미씨(52)에게 발표준비는 만만치 않았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녀에게 PPT를 제작하는 작업은 또 하나의 큰 산을 넘어야 하는 과정이다. 평가를 위해 그녀는 A4용지에 40 폰트가 넘는 글자 크기로 책 수권의 분량이나 되는 발표 대본을 직접 제작하였다. 특히 PPT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글자 2자가 모니터 화면을 가득 메울 정도로 확대해서 작업해 나갔다고 한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13년간 강사로 일해온 그녀의 강의 실력은 단연 최고였다. 준비과정을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 말고는 강의 기술과 전문성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매일 하루 4시간 이상 공부하고 발표준비를 했다. 장애인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매우 보람되었고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어서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이렇듯 이번 교육과정은 장애인 모두에게 의미가 남다를 수 밖에 없다.

▶ 좌) 민홍기 이사장으로부터 수료증을 전달받는 부산광역시 장애인청년연합회 박진영 회장
우) 교육수료를 완료하고 기쁨을 만끽하는 교육생들



선순환 효과를 위해

함께 교육에 참여했던 부산광역시장애인청년연합회 박진영 회장은 “이번에 강사과정을 밟게 되는 예비 강사들이 또 다른 장애인분들에게도 훌륭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점점 더 많은 기회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하였다.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어있는 장애인들이 안전전문가로서 처음 내딛는 발자국은 또 다른 장애인들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음을 이번 교육을 통해 증명하였다.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또한 타인의 생명도 구할 수 있는 지금의 예비 강사들은 본인들이 직접 교육과정에서 겪었던 불편함, 어려움 등을 토대로 동료들에게 가장 좋은 눈높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강사들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환경을 부탁 海



해양오염의 주범, 플라스틱과의 전쟁

전 세계는 지금,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으로 처음부터 미세플라스틱으로 제조되거나, 플라스틱 제품이 부서지면서 생성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치약, 세정제, 스크럽 등에 포함돼 있는데, 150ml 제품에 대략 280만 개의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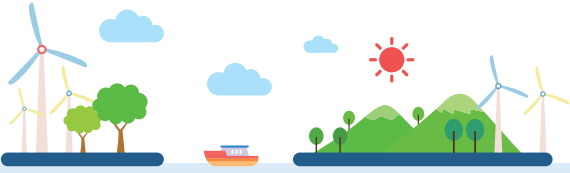
2015년 영국에서 발표된 '해양 속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에 관한 국제 목록' 논문에 따르면 바닷속에는 최소 15조에서 최대 51조 개의 미세플라스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먹이사슬의 마지막에 위치한 인간이 미세플라스틱을 먹이로 섭취한 해양생물들을 식량으로 이용하는 상황에서 현재 플라스틱은 보이지 않는 공포로 남아있다.

세계는 지금, 플라스틱 퇴출에 총력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 식기, 면봉 등에 대해 사용을 금지한다는 제안서를 발표하고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에 상정하였다.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면봉, 접시, 식기류(포크 · 숟가락 · 나이프 등), 빨대, 음료수 막대, 풍선 막대 등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들에 대해 유통을 금지하고, 재생 가능한 원료로만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은 정부에서 플라스틱 양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선 일본 환경성은 땅속에서 분해되는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을 개발한 기업과 일회용 제품 소재를 플라스틱에서 종이로 바꾸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2019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예산은 50억 엔(약 502억원)으로 배정하였다.

현재 미국도 해안지역 도시들을 중심으로 일회용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가 시행되거나 추진되고 있다. 소도시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사용규제는 현재 뉴욕,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등 대도시와 주정부로 향해가고 있다. 시애틀의 경우 미국 최초로 7월 1일부터 빨대를 포함한 일회용 플라스틱 유텐실(utensil: 숟가락, 포크, 칼 등), 칵테일 피크(Cock tail Pick),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였다. 만약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도 플라스틱 중단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가장 화제가 되었던 스타벅스는 각 나라의 규제와 별개로 오는 2020년까지 전 세계 2만 8,000개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며 대신 폴리프로필렌으로 자체 제작한 냉 음료용 컵 뚜껑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스타벅스의 결정으로 연간 소비되는 10억 개의 플라스틱 빨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좌) 스타벅스가 개발한 빨대가 필요 없는 컵뚜껑
우) 친환경 빨대로 주목받고 있는 대나무와 종이로 만든 빨대

전 세계 미세플라스틱 농도 2위, 대한민국의 바다

유럽플라스틱제조사협회(EURO MAP)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132.7kg로 조사국 63개국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의존도가 높았다. 여기에서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진이 네이처지오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세계에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높은 순위 2위와 3위에 한국의 인천~경기 해안과 낙동강 하구가 각각 그 이름을 올렸다.

최근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여 당장 지난 8월부터 카페 매장에서 음료를 마실 경우,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붙는 법적 규제를 시행하였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현재의 35%로 줄이고,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소시킴으로써 재활용률을 현재의 34%에서 70%까지 올리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 전반에서도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해양환경정화를 위한 해양구조협회의 역할

우리협회는 매월 해안가, 항구 주변으로 해양정화 활동을 펼친다. 해양쓰레기는 어민들이 사용하는 페어망, 부표, 사람들이 사용하는 빈 페트병, 각종 플라스틱 등이 포함되어 해안가로 떠밀려 오고 있으며, 심지어 가전제품까지 건져 올리는 경우도 있다. 매월 쓰레기를 수거하는 우리협회 대원들에게는 눈살이 찌푸려지는 해양쓰레기들을 마주할 때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그 누구보다 피부로 느낀다. 끝없이 밀려오는 쓰레기들 때문에 대원들의 환경정화작업은 계절에 상관없이 구슬땀을 흘려야 한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 지부 및 구조대에서는 정화작업과 함께 사람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나서 카페, 마트 등에서 플라스틱 컵이나, 비닐을 규제함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성을 인지하고 규제에 잘 따르고 있으나, 몇몇의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 순간도 우리 체내에는 여전히 그 양을 알 수 없는 미세플라스틱이 유입되어 소리 없는 공포로 우리를 마주하고 있다. 결국, 플라스틱의 소비량이 늘면 미세플라스틱을 검출하고 정화하는데 들어가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의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가 치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국 구조대 해양정화활동 모습

| 부산지부 | 가덕도 대항항 수중 및 연안정화 활동



| 경북특수구조대 | 해수욕장 수변정화 활동



| 경남서부지부 | 통영시 광도면 죽림해안로 수변·수중정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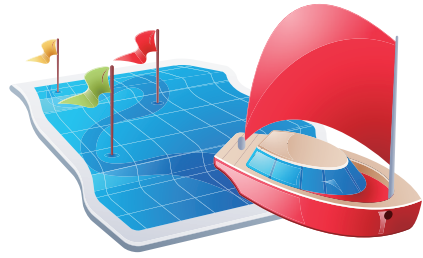
| 울진구조대 | 후포해수욕장 수변정화 활동



| 경남동부(창원)지부 | 진해구 초리도 연안 및 수중정화 활동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선박 교통량 증가 · 기상악화 대비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가을철 선박 입·출항 증가와 태풍 등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선박사고 및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가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양사고의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다.

※ 해양사고 통계(13~17) : 가을 2,732건 > 여름 2,583건 > 봄 2,126건 > 겨울 1,972건

가을철에는 조업하는 어선이 늘어나고* 여가활동이 활발해지며, 추석 연휴 여객선 운항 확대 등으로 선박 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여름에 비해 강한 태풍이 발생하는 등 기상 상황이 돌변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 출어선 현황(14~17) : 가을 477만 척 > 여름 465만 척 > 봄 374만 척 > 겨울 244만 척

이에,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통항과 해역안전 관리 강화 ▲여객선·어선 등 취약선박 특별점검 ▲가을태풍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중점 추진하는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였다. 본 대책은 해양경찰청,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 해양수산 유관기관과 함께 9월부터 3개월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선박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어선, 연안선박 등에 대한 집중관제를 실시하고, 선박 통항로 등 항만·연안 수역에서의 위험요소를 찾아 개선한다. 특히, 연안선박이 주로 사용하는 전자해도(GPS플로터)에 최근 10년간 충돌사고 다발 해역 등 안전정보가 표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연안여객선(162척)과 국제여객선(28척)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에 취약한 어선, 화물선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기준 미달 시 항행정지 등 엄격한 개선조치를 시행한다. 선박 검사기관에서는 어선과 소형선박에서 자주 발생하는 기관사고 예방을 위해 무상점검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을 태풍 등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여객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항로표지, 위험물(유류, LNG, LPG, 화학물질 등) 하역장비와 부두시설 등을 사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선박종사자에 대한 기초안전 수칙 교육과 해양안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 등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선박 교통량이 급증하는 가을철에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박의 철저한 안전운항이 필요하다."라며, "출항 전 기상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항해 당직도 철저히 하는 등 선박 충돌·인명사고 예방에 특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해양수산부]

생존의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가시해마'를 지켜주세요



해수부, 9월의 보호해양생물로 '가시해마'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약재로서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무분별하게 남획*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가시해마'를 9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 수산자원량에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물고기 등 수산자원을 마구 잡는 일

해마는 생김새가 말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지만, 고래와 같은 해양포유류가 아닌 어류에 속한다. 가시해마는 그 이름처럼 머리와 몸의 마디마디 사이에 가늘고 뾰족한 가시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마 중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가시를 지녔으며, 주둥이가 비교적 긴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가시해마의 몸길이는 약 10~13cm로, 외국 수역에서 관찰되는 가시해마보다 대체로 크기가 작은 편이다.

가시해마는 우리나라 남해안, 일본 서부 및 남부,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서태평양과 동인도양을 걸쳐 광범위한 수역에 서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9월 남해안의 여수 주변 연안에서 단 2마리만이 발견되는 등 만나기가 매우 어려운 종이다. 더욱이 가시해마는 깨끗한 아열대 바다의 잘피밭을 주 서식지로 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바닷물의 오염과 연안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가 진행됨에 따라 발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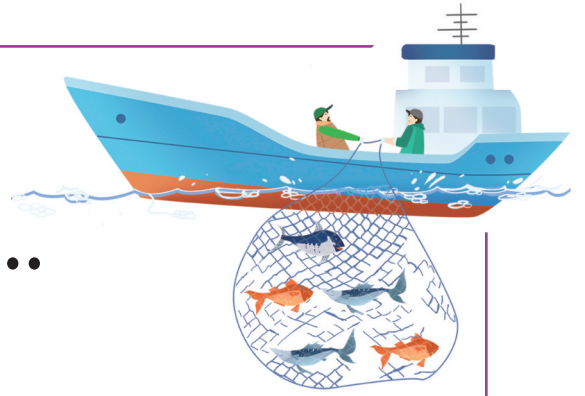
가시해마를 비롯한 해마는 1569년 출간된 명나라 의학서적인 '본초강목(本草綱目)' 등에서 정력과 임신 등에 효능이 있다고 언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차별적으로 남획되어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해마의 효능은 현재까지도 임상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으며, 신비로운 생김새와 더불어 수컷이 알을 품고 키우는 독특한 번식방법에서 비롯된 오해이다.

이 때문에 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가시해마를 국제적 멸종 취약종으로 지정하였으며, 해양수산부도 2012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가시해마를 비롯한 보호 대상 해양생물을 정부의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채취, 유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노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생태계의 훼손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보호 대상 해양생물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어획 시 간혹 혼획되는 보호 대상 해양생물을 발견할 경우 반드시 해양경찰청이나 해양수산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출처 - 해양수산부]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 자원 남획의 주범 잡는다

동해단,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 후 도주한 선장·선원 적발하여 검찰 송치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지난 7월 20일 부산해역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적발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 선장(1명)과 선원(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그물코가 작은 그물로 연안 바닥을 끌면서 수산자원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어획하는 조업으로, 일명 '고데구리' 또는 '싹쓸이 조업'이라고 불린다. 이 조업방식은 어린 물고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어획하기 때문에 수산자원 감소와 연안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7월 적발된 선장과 선원들은 불법으로 전개판*을 사용하여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하였으며,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9호의 어선조사에 불응하고 30노트(약 55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다. 또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도주 중에 전개판 1쌍(2개)을 포함한 불법어구와 불법 어획물을 해상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 어망의 입구를 크게 넓히기 위해 어선에서 사용하는 그물 전개 장치로 트롤어선을 제외하고 금지되어있는 어구

또한, 고의적으로 승선조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천막을 치고 지그재그로 항해하면서 추적하는 단속정에 위협을 가하여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 바다에 추락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단속정은 이후에도 추적을 계속 하였으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당일 추적은 중단하였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 전개판 및 어획물을 해상에 투기하는 장면을 녹화한 증거 영상과 선박입출항 기록을 확인하여 해당 선박을 적발하였다. 이후 약 한 달간의 조사기간을 거쳐 선장과 선원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선장 등 4명을 관할 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04년 제정된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까지 8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의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총 3,600여 척 중 2,468척을 매입하였고, 나머지 1,200여 척은 타 허가어업으로 전업시켜 소형기선저인망을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적발됨에 따라 해당 어선을 예의주시 하면서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불법소형기선저인망 어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바다에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출처 - 해양수산부]

서아프리카 해적 위험 높아져... 해적 경계강화 당부

해수부, '2018년 상반기 전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지난 8월 10일(금) '2018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 세계에서 발생한 해적사고는 총 107건으로 전년 동기(87건) 대비 23% 증가하였다. 이는 나이지리아, 가나, 베냉 등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에서의 해적사고가 전년 상반기 20건에서 올해 상반기 4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적사고가 증가하면서 해적사고로 피해를 겪은 선원 수도 13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하였다. 특히 올해 발생한 인질 피해의 98%(100명)와 선원납치 피해(25명)는 모두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최근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해적 행위로 인한 선원·선박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나이지리아 등 기니만에 접한 국가는 다국적 연합훈련 등을 통한 해적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나, 선박피랍 및 선원납치 등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연안으로부터 200마일 이상의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항해하고, 해적 행위 피해예방 요령* 등 관련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위험해역 진입 전 통항 보고 및 비상훈련실시, 해적침입방지시설 설치, 해적당직 등 경계활동 강화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올해 들어 서부아프리카 해적 활동이 급증하고 있어 서부 아프리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주의 경계 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선사들의 적극적인 해적피해 예방 활동 참여를 당부하였다.

[출처 - 해양수산부]



협회교육안내

2018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교육생 모집 안내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본부에서는 「수상구조기술향상과정」의 일환으로

2018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실기시험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구조사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개요

- 과 정 명 :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양성교육
- 주 관 :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본부
- 교육대상 : 수영 100m 이상 가능한자, 인명구조요원 자격 소지자, 해경특공대(경찰공무원 희망자), 생존수영강사 활동희망자, 실내수영장, 워터파크, 해수욕장, 각종 물놀이 시설 등에 안전요원으로 취업희망자
- 교육기간 : (오후반) 2018. 10. 2.(화) ~ 10. 25.(목)【13일간_64시간】/ 13:00 ~ 18:00
(주말반) 2018. 10. 3.(수) ~ 10. 21.(일)【8일간_64시간】/ 09:00 ~ 18:00
- 접수기간 : 2018. 9. 4.(화) ~ 9. 28.(금)
- 교육인원 : 과정별 각 40명(신청서 제출 선착순 마감)
- 교육장소 : 부산사직실내수영장 내 회의실 및 수영장
- 교 육 비 : 금450,000원 (수협 1010-1020-6229 한국해양구조협회) ※수영장입장료 포함
- 최초집결지 : 부산사직실내수영장 내 107호(강의실) 및 수영장
- 준 비 물 : 수영복, 수모, 세면도구, 필기도구, 증명사진(1장)

■ 주요사항

-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며, 본 교육기관에서는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64시간만 진행하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교육수료하신 후 개인이 직접 해양경찰청에 신청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사정으로 인해 수상구조사 교육(64시간) 미 이수 시 추가 보충교육을 받아야 수료증이 발급되며, 향후 보충교육 일정은(미 이수자 수 및 강사섭외 등) 사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므로, 정확한 일정을 현재 공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 교육시작일 부터는 환불이 불가하오니, 수강취소를 원하시면 교육 전 환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문 의 : 부산본부 (T. 051-714-3122, F. 051-714-3095, E. kmrc119@hanmail.net)
- 한국해양구조협회 홈페이지 www.marsa.or.kr
-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 <http://imsm.kcg.go.kr>

■ 2018년 4-1차 한국해양구조협회 수상구조사 주중오후반 일정표

○ 기 간 : 4-1차 - 2018. 10. 2.(화) ~ 10. 25.(목) [13일간_64시간] / 13:00 ~ 18:00

○ 장 소 : 부산사직실내수영장 내 107호(강의실) 및 수영장

연 번	일 자	시 간	교육내용	장 소	시 간
1	10/2(화)	13:00~16:00	과정소개 및 구조영법(자유형, 평영, 트러젠, 횡영, 배영)	2부 다이빙	3
		16:00~17:00	수상구조사의 임무와 책임(이론)	강의실	1
		17:00~18:00	수상구조사의 자질과 정신(이론)		1
2	10/4(목)	13:00~15:00	수상 구조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론)	강의실	2
		15:00~17:00	수상레저안전법, 선박안전법(이론)		2
		17:00~18:00	수상일반(이론)		1
3	10/5(금)	13:00~15:00	재난상황 이해 및 수난사고 다발지역 분석(이론)	강의실	2
		15:00~17:00	해양환경(이론)		2
		17:00~18:00	수상일반(이론)		1
4	10/10(수)	13:00~14:00	구조영법(잠영, 헤드업, 평영, 트러젠)	2부 다이빙	1
		14:00~16:00	수영구조(잠영, 입영, 스컬링, 중량물), 장비구조	강의실	2
		16:00~18:00	기본응급처치술(이론)		2
5	10/11(목)	13:00~14:00	구조영법(잠영, 헤드업, 평영, 트러젠)	2부 다이빙	1
		14:00~16:00	수영구조, 장비구조(레스큐튜브)	강의실	2
		16:00~18:00	외상환자 응급처치(이론)		2
6	10/12(금)	13:00~15:00	수영구조(잠영, 입영, 스컬링, 중량물), 장비구조	2부 다이빙	2
		15:00~16:00	종합구조술	경영	1
		16:00~18:00	종합구조술		2
7	10/16(화)	13:00~14:00	수영구조, 장비구조(레스큐튜브)	2부 다이빙	1
		14:00~16:00	종합구조술	경영	2
		16:00~18:00	종합구조술		2
8	10/17(수)	13:00~14:00	구조영법(자유형, 평영, 트러젠, 횡영, 배영)	2부 다이빙	1
		14:00~16:00	구조영법(잠영, 헤드업, 평영, 트러젠)	강의실	2
		16:00~18:00	부상자 구조법(골절, 경추손상환자구조 등)		2
9	10/18(목)	13:00~16:00	선상안전과 비상대응(구명뗏목, 퇴선방법)	2부 다이빙	3
		16:00~17:00	수영구조, 장비구조(레스큐튜브)	경영	1
		17:00~18:00	구조영법(잠영, 헤드업, 평영, 트러젠)		1
10	10/19(금)	13:00~15:00	선상안전과 비상대응(구명뗏목, 퇴선방법)	2부 다이빙	2
		15:00~16:00	수영구조, 장비구조(레스큐튜브)	경영	1
		16:00~18:00	부상자 구조법(골절, 경추손상환자구조 등)		2
11	10/23(화)	13:00~15:00	기본응급처치술(환자평가, CPR, 기도폐쇄, AED)	강의실	2
		15:00~17:00	응급의료 장비사용(환자고정 · 운반법, 산소소생기 사용)		2
		17:00~18:00	로프 사용법, 매듭법(실습)		1
12	10/24(수)	13:00~15:00	외상환자 응급처치(상처 드레싱, 부목)	강의실	2
		15:00~16:00	응급의료 장비사용(환자고정 · 운반법, 산소소생기 사용)		1
		16:00~18:00	로프 사용법, 매듭법(실습)		2
13	10/25(목)	13:00~15:00	수영구조, 장비구조(레스큐튜브), 구조영법	2부 다이빙	2
		15:00~16:00	종합구조(구조방법 등 반복 교육)	강의실	1
		16:00~18:00	로프 사용법, 매듭법(실습) 및 수료식		2

※ 매 교육개시 전 수강신청자가 15명 미만일 경우에는 차기교육으로 이월

■ 2018년 4-2차 한국해양구조협회 수상구조사 주말·공휴일반 일정표

○기 간 : 4-2차 - 2018. 10. 3.(수) ~ 10. 21.(일) [8일간_64시간] / 09:00 ~ 18:00

○장 소 : 부산사직실내수영장 내 107호(강의실) 및 수영장

연 번	일 자	시 간	교육내용	장 소	시 간
1	10/3(수)	09:00~10:00	과정소개 및 수상구조사의 임무와 책임(이론)	강의실	1
		10:00~11:00	수영구조(자유형, 평영, 잠영, 입영, 횡영), 장비구조	경영	1
		12:00~15:00	구조영법(자유형, 평영, 트러젠, 횡영, 잠영, 헤드업)	2부 다이빙	3
		15:00~17:00	재난상황 이해 및 수난사고 다발지역 분석(이론)	강의실	2
		17:00~18:00	수상구조사의 자질과 정신(이론)		1
2	10/6(토)	09:00~10:00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론)	강의실	1
		10:00~11:00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론)		1
		11:00~12:00	수상레저안전법, 선박안전법(이론)		1
		13:00~16:00	구조영법(자유형, 평영, 트러젠, 횡영, 잠영)	2부 다이빙	3
		16:00~17:00	수영구조, 장비구조(레스큐튜브)	경영	1
		17:00~18:00	수상레저안전법, 선박안전법(이론)		1
3	10/7(일)	09:00~10:00	기본응급처치술(환자평가, CPR, 기도폐쇄, AED)	강의실	1
		10:00~11:00	외상환자 응급처치(상처 드레싱, 부목)		1
		13:00~15:00	응급의료 장비사용(환자고정·운반법, 산소소생기 사용)		3
		15:00~18:00	로프 사용법, 매듭법(실습)		3
4	10/9(화)	09:00~10:00	기본응급처치술(이론)	강의실	2
		10:00~11:00	외상환자 응급처치(이론)		2
		13:00~15:00	기본응급처치술(환자평가, CPR, 기도폐쇄, AED)		2
		15:00~18:00	외상환자 응급처치(상처 드레싱, 부목)		2
5	10/13(토)	09:00~11:00	해양환경(이론)	강의실	2
		11:00~12:00	수상일반(이론)		1
		13:00~16:00	구조영법(자유형, 평영, 트러젠, 횡영, 배영)	2부 다이빙	2
			수영구조(잠영, 입영, 스컬링, 중량물), 장비구조		1
		16:00~17:00	수영구조, 장비구조(레스큐튜브)	경영	1
		17:00~18:00	수상일반(이론)	강의실	1
6	10/14(일)	09:00~11:00	부상자 구조법(골절, 경추손상환자구조 등)	강의실	2
		11:00~14:00	선상안전과 비상대응(구명뗏목, 퇴선방법)		2
		14:00~15:00	구조영법(자유형, 평영, 트러젠, 횡영, 배영)	경영	1
		15:00~18:00	종합구조술	3부 다이빙	3
7	10/20(토)	09:00~11:00	선상안전과 비상대응(구명뗏목, 퇴선방법)	강의실	2
		11:00~12:00	로프 사용법, 매듭법(실습)		1
		13:00~16:00	구조영법(자유형, 평영, 트러젠, 횡영, 배영)	2부 다이빙	2
			수영구조, 장비구조(레스큐튜브)		1
		16:00~17:00	종합구조(구조방법 등 반복 교육)	경영	1
		17:00~18:00	로프 사용법, 매듭법(실습)	강의실	1
8	10/21(일)	09:00~11:00	선상안전과 비상대응(구명뗏목, 퇴선방법)	강의실	2
		11:00~14:00	부상자 구조법(골절, 경추손상환자구조 등)		2
		14:00~15:00	구조영법(자유형, 평영, 트러젠, 횡영, 배영)	경영	1
		15:00~18:00	종합구조술 및 수료식	3부 다이빙	3

※ 매 교육개시 전 수강신청자가 15명 미만일 경우에는 차기교육으로 이월

협회교육안내

2018년 『인명구조요원』 교육

해양사고 발생으로 인한 구조대원의 절대적 안전은 물론
요구조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에서의 전문화된 교육을 통한 인명구조요원 육성

| 2018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18년 1월 ~ 12월 (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관할 지역 실내수영장
- 대 상 : 요원 - 만 16세 이상 누구나
강사 - 요원 자격이 있는 자
- 교육과정 : 인명구조요원 교육(40시간), 인명구조강사(60시간)
- 준 비 물 : 수영복, 수모, 수경, 오리발, 세면도구, 필기도구, 활동복, 활동화, 사진2매
- 교 육 비 : 요원 20만원 / 강사 30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시험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
- 교육과목
 -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법(16시간) / 기본인명구조술 등
 - 인명구조법 (24시간) / 구조영법, 종합구조술, 장비구조술 등
 - 인명구조 교수법 (20시간) / 기본인명구조술, 장비구조술 등

- 자격명
인명구조요원, 인명구조강사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인명구조요원(2014-1485)
인명구조강사(2014-5724)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민홍기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협회교육안내

2018년 『재난안전지도사』교육

각종 재난·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문화 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및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 있는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함

| 2018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간 : 2018년 1월 ~ 12월 (주말반, 평일반)
- 장소 : 교육 요청지역 내 교육장
- 대상 : 1급 - 고졸 이상의 만 18세 이상 남·녀 누구나
2급 / 3급 - 제한없음
- 준비물 : 필기도구, 활동복, 활동화, 사진2매
- 교육비 : 1급 30만원 / 2급 10만원 / 3급 5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불 : 시험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
- 교육과목
 - 재난안전의 의미(8시간)
 - 위급시 행동요령 및 구조구급 (8시간)
 - 재난안전 교수법 (50시간)

- 자격명
재난안전지도사(1급/2급/3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2015-003725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민흥기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2018년 『해양안전지도사』 교육

각종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문화 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문성 있는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함

| 2018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간 : 2018년 1월~ 12월
- 장소 : 교육 요청지역 내 교육장
- 대상 : 1급 - 고졸 이상의 만 18세 이상 남·녀 누구나
2급 - 제한없음
- 준비물 : 필기도구, 활동복, 활성화, 사진2매, 수영복, 수모, 수경
- 교육비 : 1급 30만원, 2급 10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불 : 시험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
- 교육과목
 - 해양안전 · 생존 등 해양사고예방의 의미(8시간)
 - 선박화재, 충돌, 침수 등 위급 시 행동요령(8시간)
 - 해양안전 · 생존 등 교수법(50시간)

- 자격명
해양안전지도사(1급/2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2015-002815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민흥기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협회후원안내

1) 월 정기후원 안내

- 아래의 계좌번호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은행 : 수협 | 입금계좌번호 : 1010-1020-6195 | 예금주 : 한국해양구조협회

2) 특정목적사업 후원

- 구조장비 보급사업, 청소년안전교육, 바다쓰레기 정화활동 등 특정 프로그램에 협찬,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사홍보물에 후원자의 이름, 로고 등을 넣어드립니다.

3) 후원회원이 되시면

- 후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와 홍보물을 보내드립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행사에 우선 초대해드리며, 참가비가 있을 때는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 해양안전지킴이로서 보람과 긍지를 돌려드립니다.

4) 문의

| 전화 : 051-714-3695 | 팩스 : 051-714-3095 | E-MAIL : kmrc119@hanmail.net |



국가
공인

2018년 한국해양구조협회 수상구조사 양성교육

수강생 모집 안내



수상구조사란?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을 부여받은 자

수상구조사가 되려면?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단체(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64시간) 후 해양경찰청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함

평가과목

구분	세부항목
영법	잠영, 머리들고 자유형, 평영, 트러젠(각25m 1분 45초 이내)
수영구조	맨몸구조, 장비구조, 잠힘탈출
종합구조	머리지지/턱고정, 스컬링, 익수자운반, 구명뗏목사용법, 입영 등
응급처치	성인 CPR, 의료장비, 소아/영아 CPR



역할 및 혜택 ★★★★★

수상구조사는 해경특공대(경찰 공무원 희망자), 생존수영강사 활동희망자, 실내수영장, 워터파크, 해수욕장, 각종 물놀이 시설 등에 안전요원으로 취업희망자들에게 가산점 등의 혜택이 있음.



교육과정 안내

교육기간	오후반	2018.10.2(화)~10.25(목) [13일간]
	공휴일/주말반	2018.10.3(수)~10.21(일) [8일간]
접수방법	홈페이지(www.marsa.or.kr) 접수 후 교육비 납부	
교육인원	과정별 각 40명(선착순 마감)	
교육장소	부산사직실내수영장(부산)	
교육비	금450,000원 (교재비, 시설이용료 경비 포함, 숙식비 본인부담)	
문의처	한국해양구조협회 T. 051-714-3122	
	한국해양구조협회 홈페이지 www.marsa.or.kr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https://ims.kcg.go.kr	



해양경찰청지정 교육기관
한국해양구조협회

IMMERUTION VR Training SAR

MEP 선박안전운항 교육 프로그램

Mariner Education Program

선박 소화, 퇴선, 선박구조 및 구명설비 VR 교육훈련 프로그램!

NCS 기준 직무훈련과 SOLAS 협약훈련기준의 기초안전교육 실감형콘텐츠!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한 기초안전교육으로 VR 실감형콘텐츠로 반복학습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01 선박 소화훈련



02 선박 퇴선훈련



03 선박 구조교육



48508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12, 834호(대연동, 21센츄리시티오피스텔)
T. 051-610-0301 F. 051-610-0302 www.samwoom.com
담당자, 최승호이사 s.gong4b@samwoosoft.com